

Sinopec, 정제마진 악화 “고전”

자본지출 감축에 자회사 매각 ... 원유 수입가격 급등이 원인

중국 Sinopec이 정제마진(Refining Margin)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Platt's에 따르면, Sinopec은 원유 수입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휘발유 등의 내수 판매가격이 거의 고정되다시피 해 채산성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제마진 악화로 현금흐름(Cash Flow)에 적신호가 들어온 Sinopec은 2005년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을 6.5% 감축해 580억위안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조치를 취했다.

Sinopec은 10월18일 Sinopec Wuhan Phoenix의 지분 40.72%를 China Changjian National Shipping Group에 매각했으며 매각금액은 5억7810억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2년 설립된 Sinopec Wuhan Phoenix는 80만톤의 FCC(Fluid Catalytic Cracker), Gas Fractioning 30만톤, PP 30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Sinopec, Wuhan Petrochemical Industry, 지방금융기업 컨소시엄의 합작기업이다.

또 Sinopec은 2007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었던 Qingdao 소재 일산 20만배럴 정유설비의 공사도 연기하는 등 가능한 자구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0/24>